

2009 JAN·FEB Vol.73 01·02

건강한 세상을 향한 네비게이션 -

# 인하대병원



#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2009. 01+02

# CONTENTS

Jan. Feb Vol. 73

05	신년사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만 있다면 희망의 길은 열립니다
07	격려사	큰 꿈과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08	포커스	JCI 인증 추진
10	Well-being Report	강원도는 준비된 장수인의 터전
13	의학정보 1	소리없이 다가오는 녹내장
16	의학정보 2	여자의 마음만큼 밝히기 어려운 턱관절
18	건강책갈피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절대 똥똥해 지지 말라
21	글이 머무는 풍경	나는... 밥 짓는 약사 병원생활에 자신감과 활력 얻어
24	기획인터뷰	이색체험, 모델 데뷰~
26	감사의 편지	10년간 인हा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27	특특약물상담	똑소리 나는 약 보관법
28	운동처방사의 운동법	제자리에서 빨리 걷기, 덤벨로 근육강화 운동
30	협력병원 탐방	건강한 내일을 열어가는 병원으로
31	병원소식	인हा대병원소식
36	알립니다	자원봉사안내 / 파랑새소식 / 인사동정 / 발전기금 사회복지소식 / Global Inha 퀴즈 퀴즈 제47회 / 무료공개 강좌

# 용서의 기쁨

이해인 | 시인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는 용기  
용서 받는 겸손이라고  
일기에 썼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은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기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직이 고백합니다

수백 번 입으로 외우는 기도보다  
한 번 크게 용서하는 행동이  
더 힘있는 기도일 때도 많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오해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누가 나를 속이고 모욕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는 기쁨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만 있다면 희망의 길은 열립니다



친애하는 인하가족 여러분!

2009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좋은 것은 한 해의 시작이란 단어에는 무한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해에는 인하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인하가족 여러분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병원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Global Standard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JCI 인증 선포식을 갖고, 외래 공간 재배치 및 편익시설 확대, 특성화 전문센터 추진, 정보·통신 인프라 재구축 등 많은 부문에서 새로워 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경영목표를 '경쟁력 우위 기반구축과 새로운 도약 실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직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특성화 전문센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의료 환경은 점점 세분화되는 전문화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까지도 았다툼 센터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병원도 작년에 소화기센터를 확장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당뇨비만센터를 새로 Open하여 환자들에게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폐암센터 및 류마티스센터를 상반기



중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 목표로 영종메디컬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전문센터는 타 병원을 따라가기보다 우리 병원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진료에 한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전국 최고의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GLOBALIZATION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 성장 동력으로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병원간 피할 수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동북아 메디포트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병원은 국내 최초로 미국 의료관광단과 러시아 팸투어단 유치와 중국 및 몽골 병원, 미 육군 의무대와의 협력병원 협약 체결로 타 병원보다 한발 앞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Asia-pacific 메디포럼 등의 개최로 입지적인 위치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0년 12월을 목표로 Global Standard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09년을 맞아 JCI인증 선포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연구중심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의약산업이 21세기 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신약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이때, 우리 병원은 작년에 인천지역 최초로 지역임상시험센터와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로 선정되었으며, 미국 유타약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송도에 DDS 및 신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소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국제수준의 임상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연구중심 병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리 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국제 인증인 FERCAP를 신청할 계획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DDS 및 신 의료기술 개발연구의 세계적인 연구개발센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년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놀라울 만큼 많은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발전할 가능성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지역임상시험센터, 의료기관 평가,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 선정,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 개설 등등에서 남들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것을 가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인하가족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긍정적인 사고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동북아 메디포트'도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부고객 만족 없이 외부 고객인 환자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병원은 제2의 가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생활이 행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

로 믿음과 신뢰를 주고받고 직원 간에 한가족이라는 마음이 형성될 때 우리 병원은 그야말로 신명나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직장 동료 간에 그리고 부서 간에 믿음과 상호협조의 미덕이 발휘되고 상하 간에도 돈독한 믿음이 싹틀 때만이 그 조직의 힘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의료원장으로서 인하가족 여러분들이 행복감과 자존감을 찾아 인하가족임에 프라이드를 갖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인하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우리나라 경제는 10년 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침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장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계 또한 계속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수많은 걸림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걸림돌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뛰어 넘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온갖 위험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할 수 있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만 있다면 희망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연연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병원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마음이 더해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환한 불빛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인하가족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캠페인 구호를 우리도 함께 외쳐봅시다. Yes, We can!

끝으로 기축년 새해에는 더 큰 꿈과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인하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2일

인하대병원 의료원장 이 두 익

# 큰 꿈과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사랑하는 인하가족 여러분!

어느덧 2008년 한 해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를 맞을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사회적, 국가적으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격랑의 한 해를 보내면서, 저 또한 여러 소회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에 앞서 인하가족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부터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병원장으로 취임한 지 10개월, 금년 한 해 동안 각자 맡은 바 업무에서 병원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주신 인하가족 여러분이 있었기에 우리병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으며,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니 지난 한 해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평가 최우수, 지역임상시험센터 및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선정, 각종 외국병원 및 기관과의 MOU 체결, 당뇨비만센터 개소, 3세대 초음파 암 치료기 하이프 도입, 장례식장 새 단장, 옥외주차장 완공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러분의 큰 관심과 사랑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 드리며, 새해에도 인하가족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꿈을 만들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더 큰 사랑과 관심으로 더 좋은 병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하가족 여러분!

저물어 가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 큰 꿈과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8년 12월 30일

인하대병원 병원장 박 승 립



# 최고의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JCI 인증 추진을 선택”

우리병원은 올해 핵심 사업으로 JCI인증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전 직원의 결의를 다지는 JCI 인증 선포식을 가졌다.

JCI 인증은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진료과정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병원임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JCI 인증으로써 동북아 메디포트를 꿈꾸는 인하대병원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글 · 문미혜 Q팀장 | 적정진료관리실



지난 1월 2일 우리병원의 올해 핵심 사업으로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이를 선포하고 전 직원이 결의를 다지는 JCI 인증 선포식을 가졌다. 박승림 병원장께서는 “JCI 인증 추진 의미는 환자와 직원을 보호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이며, Global Standard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병원장을 본부장으로 12개 전문 분과 Task Force Team을 구성, 임원 및 교수들이 각 팀의 팀장을 맡아 준비 활동에 들어가 2010년 12월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병원이 JCI 인증을 추진함은 [환자 안전중심 문화로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는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진료과정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병원임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여 동북아 메디포트를 꿈꾸는 인하대병원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게 될 것이다.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는 미국에 본부를 둔 비영

리, 비 정부기관으로 1994년 The Joint Commission(구 JACHO,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 care Organizations)이 설립한 국제 의료기관 인증 기관이다.

세계적으로는 35개국 211개 기관(09.1 현재)이 JCI 인증을 받았으며,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선정한 10대 병원(존스 홉킨스병원, 메이요클리닉, 하버드대의대병원 등)을 포함하여 미국 내에서도 의료기관의 95%가 (18,000개) JCI 인증을 받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아 민간 의료보험사가 병원과 계약의 최우선 요구 조건으로 제시할 정도이다.

또한 JCI 인증 기준이 국제적이며 엄격하여 JC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 교육(Standard Education)과 최소 4~6개월 단위의 Baseline assessment, Mock Survey, Accreditation Survey, Focused Survey (필요시)과정을 통해 합격점을 받을 경우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JCI 기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단연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생



각하는 병원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환자 안전을 위한 요구 수준은 6개 부문의 국제 환자 목표(International patient safety goals) 준수와 타당하고 원활한 진료체계 구축 등을 평가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영역별 Standard와 신임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JCI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은 병원의 모든 운영 원칙(Policy)을 국제 의료 수준의 높이에 맞추는 것이다.

JCI 인증 추진을 통해 우리병원에 기대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진료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포함한 포괄적 질 향상이다. 그동안 개인의 판단, 경험, 혹은 노하우로 업무를 수행해 오던 것

을 모두 문서화하고 필요에 따라 병원의 내규(규정, 시행규칙등)로 정착시킴으로 정책 및 기준의 일관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둘째**, 환자와 보호자 경청, 권리존중, 파트너로서 건강관리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셋째**, 유해 사고와 안전 문제의 적시 보고 채널 구축을 통해 안전 관리 사고가 감소하고

**넷째**, 의무기록 체계 표준 정립과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다섯째**, 업무 표준화로 업무 효율의 향상과 직원간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우선 순위 설정을 위해 협력하는 리더십을 갖추게 될 것이다.

## JCI Standards

신임조건(Accredited) : 각 Chapter 평균 최소 7점, 각 Standard 최소 5점, overall(모든 표준의 평균 점수) 최소 8.5점, International patient safety goals 최소 5점

Section	Chapter	Standards
환자진료 부 문	1. 진료의 접근성과 연속성 (ACC: Access to Care and Continuity of Care )	21
	2. 환자와 가족의 권리 (PFR: Patient and Family Right)	30
	3. 환자 평가 (AOP: Assessment of Patients)	42
	4. 환자 진료 (COP: Care of Patients)	23
	5. 마취와 수술 (ASC: Anesthesia and Surgical Care)	14
	6. 약물관리와 사용 (MMU: Medication Management and Use)	21
	7. 환자와 가족의 교육 (PFE: Patient and Family Education)	7
병원관리 부 문	8. 질 향상과 환자 안전(QPS: Quality improvement and Patient Safety)	38
	9. 감염예방과 관리 (PCI: Prevention and Control Infection)	23
	10. 조직운영 및 관리, 리더십(GLD: Governance, Leadership and Direction)	26
	11. 시설안전관리 (FMS: Facility Management and Safety)	27
	12. 직원의 자격관리와 교육(SQE: Staff Qualification and Education)	23
	13. 의사소통과 정보관리(MCI: Management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28
	국제 환자 안전 목표( IPSGs: International patient safety goals)	6
<b>합 계</b>		<b>329</b>

(JCI Standard 3rd Edition)

장수요인 골고루 갖춘 하늘이 내린 땅,  
**강원도는 준비된 장수인의 터전**



최근 장수도가 가장 빠른 지역인 강원도, 자연이 가져다 준 천혜의 환경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사소한 습관들이 이뤄낸 결실이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강원도 지역의 남성 장수도가 국내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장수 편중 현상을 볼 때 눈여겨 볼만한 일이다. 최상을 향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강원도 장수의 비결을 알아보자.

강원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장수 마을은 아니다. 그러나 빠르게 장수인구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 중에서 최근 장수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 강원도이다. 특히 강원도 인제군과 화천군을 비롯하여 지역 전체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곧 국내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강원도 지역은 남성 장수도가 국내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수 패턴이 여성 편중 현상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남녀 장수도에서 일정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 장수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강원도가 실시한 '강원도 장수지역 실태조사'에서 새롭게 장수지역으로 발전하는 강원도와 전통적인 장수지역인 호남 지방을 비교하여 한국적 장수 패턴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신 장수지역인 강원도의 장수비결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육어류 보다 두류, 해조류 선호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삶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과 직업적 성공, 외로움과 고립감이 없는 생활을 말한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적극 대처하고 있는 강원도가 지향하는 장수촌의 모습이기도 하다. 강원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장수촌을 만들어 가는 신 장수지역 강원도, 그 비결은 무엇일까?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인, 즉 자연환경과 식생활, 그리고 생활양식이 중요한 장수요인이다. 이중 식품 섭취 및 식습관을 비롯한 식생활은 매우 중요한 장수요인이다. 강원도 장수인들의 식습관을 먼저 알아보자.

강원도 장수노인들이 식습관을 보면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밥류, 찜류, 구이류 순이었고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두류이다. 반면 싫어하는 음식은 젓갈류, 장아찌류,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등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육어류 보다 두류와 해조류를 선호하고 있다.

호남지방의 장수인과 마찬가지로 젓갈류, 장아찌류,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등을 싫어하였다.

강원도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장수인 전원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식사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욕이 좋아서 식사 시간도 즐겁다고 말한다.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연령 때문에 오는 체력약화가 있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소일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보였다. 이 조사의 결과를 볼 때 강원지역 장수인들은 흡연과 음주를 절제하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를 통하여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남성 백세인 많고, 독립적 생활이 높아

또 이 연구결과에서 강원도는 전라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 백세인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의 생활이 독립적인 비율도 강원도 장수인의 90대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여러 가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통적인 전라도 장수인에 비해 강원도 장수인이 신체적으로 크고, 무겁고, 체질량 지수가 높고, 90대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가 더 양호하였다. 이는 장수도가 전라도에 비해 낮은 강원도에서 장수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었음을 뜻하는 것 아닐까. 강원도 장수인의 생활은 적당한 소일거리를 하고 산책 등 꾸준한 움직임, 그리고 한국적인 식습관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수려한 산 등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꼽는다. 성향은 이웃과 친밀하고 개방적으로 지내며 공동 활동 등에 적극참여하여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비결이다.

강원도가 장수지역으로 뜨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모범적인 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진에 참가한 마을은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자랑할 만한 분야를 선정하여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도의 농업기술원에서는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장수문화로 지속 가능한 전국 최고의 장수촌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스스로 자신의 일을 갖고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이 100세 청춘의 비결이다. 강원도는 빠르게 진행되는 장수도에 발맞추어 뜨는 신 장수지역으로의 급부상을 꾀하고 있다.

하늘이 내린 살아 숨 쉬는 땅, 강원도! 잘 준비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속의 장수촌으로의 변신을 기대해 본다.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자료원: 강원도청, 강원도농업기술원)

### \* 강원도 남성 장수인, 그 비결은?



● 강원도 삼척시에 사시는 김종학(88세) 할아버지는 짚풀 공예(자리, 명석, 짚신 등)와 아라리 또는 옛 소리를 잘 하신다. 농사일을 하실 정도로 기력이 좋아서 아직도 아들 내외와 함께 콩 농사를 지으실 때면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생활하신다. 김 할아버지는 무엇보다 맑은 공기와 물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사는 것과 규칙적인 생활과 소식이 자신의 장수비법이라고 한다.



● 85세인 송삼순 할머니와 사시는 강원도 인제군 마용봉(91세)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최장수 어른으로 집에서 노인 회관까지 2km의 거리를 자전거를 이용하여 오가며 '바쁘면 늙을 새가 없다'는 생활신조를 갖고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생활하시는 모범을 보이신다. 마 할아버지는 먹을거리는 대부분 자급자족하며 배추, 무, 오이 등은 농약을 뿌리지 않고 직접 기른 것을 먹는다. 열심히 생활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장수비결이라고 한다.

# 綠 內 障

## 소리없이 다가오는 녹내장

최근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주인공 정지오(현 빈 분)가 눈을 다친 후 녹내장에 걸려 수술을 받았으나 실명을 한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 녹내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과연 녹내장은 어떤 병일까요?



**오중협 교수** | 안과  
 • 전문분야: 백내장, 녹내장  
 • 진료시간: 월·목(오전), 화(오후)  
 • 문의: 안과 ☎032-890-2400

녹내장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명 원인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여러 보고에서는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약 2% 가량이 녹내장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녹내장은 단일 질환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임상소견과 병리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이루어진 장애군이며, 주요 원인인 안압 상승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위험요인으로 초래된 특유의 시신경 손상과 이에 따른 시야결손을 보이는 양상들의 총칭입니다.

### 녹내장의 발생 위험군

녹내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뚜렷하지는 않으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생률도 점차 높아집니다. 안압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있는 경우, 각막 두께 검사에서 두께가 얇은 경우

혹은 안저 검사에서 녹내장을 의심할 만한 시신경 유두 모양이 확인된 경우나 시야검사에서 보이는 전형적 녹내장성 시야결손이 보이는 경우에는 고 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녹내장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 근시, 편두통 등의 상을 갖고 있는 환자군도 녹내장의 발생의 위험군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상성 녹내장의 증상은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 비슷한데,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나올 수 있으나 드라마에서처럼 피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 녹내장의 증상

증상은 각각의 분류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급성 발작으로 오는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면서 묵직한 통증과 함께 두통이 생기고, 불빛을 보면 불빛 주위로 무지개가 보이는 현상과 오심,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안구 충혈과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 또한 폐쇄각 녹내장의 특징적 증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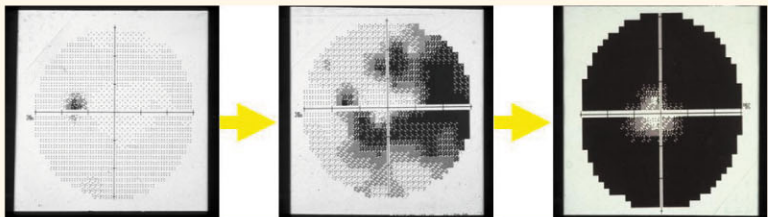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은 눈의 구조상 전방의 깊이가 얇기 때문에 서양인에 비해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내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성 개방각 녹내장이나 정상 안압 녹내장의 경우에는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시신경이 상당히 손상되는 말기까지 시력도 거의 정상인 경우가 많아 환자가 증상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녹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 검진을 통해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천성 녹내장인 경우에는 생후 1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기가 빛을 보면 눈이 부셔서 잘 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눈꺼풀의 경련이 나타나며, 안구가 커져 짝짝이 눈이 되기도 합니다.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받지 못하면 실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의 정지오의 경우에는 눈을 다친 후 녹내장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외상 후에 발생하는 외상성 녹내장으로 추정됩니다. 안구에 큰 충격이 가

▼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각막 부종이 생기고 충혈된 눈



▼ 녹내장의 시야결손





▲ 녹내장의 시야변화

# 綠 內 障

해진 후 안구 내의 출혈이 발생하여 안구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수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 안압이 올라가며 시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상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초기에 안압을 낮출 경우 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 비슷한데,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나올 수 있으나 드라마에서처럼 피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 녹내장의 치료

녹내장의 치료는 분류와 기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환자 분들이 병원을 찾게 되면 안압검사, 안저검사, 전방각경 검사 등의 기본적인 검사를 받게 되며 시신경 손상 유무를 확인하는 시신경단층촬영검사, 시야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시야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녹내장으로 진단된 환자 군은 우선적으로 안약을 통한 약물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목표 안압을 설정하고 단일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여러 종류의 안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레이저 치료 혹은 수술적 방법으로 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 급격한 안압 상승에 의한 심한 두통 및 안구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축동제를 일차 약물로 점안할 수 있으며, 고삼투압 제제를 정맥 주사함으로써 안압을 하강시켜 통증 완화 및 시력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초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경우 실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세 이상 성인에서는 1년에 1회씩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으며 간헐적으로 심한 두통이 발생하면서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녹내장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이고, 내 턱이야!

# 여자의 마음만큼 밝히기 어려운 턱관절



**장금수 교수** | 치과  
• 전문분야 : 구강외과  
• 진료시간 : 목(오전), 월·금(오후), 수(종일)  
• 문의 : 치과 ☎032-890-2470~1

턱관절 질환은 매우 다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겪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동, 서양을 막론하고 전 인구의 75%에 이르는 사람들이 턱관절 질환의 증상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가지며, 20~30% 정도에서 안면통, 관절통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고도 합니다.

## 턱관절 질환이란?

턱관절은 아래턱을 머리뼈에 연결하면서 아래턱의 운동을 조절하는 관절로, 좌,우 양측에 위치하면서, 양측이 동시에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턱관절 질환은 사실 턱관절 뿐 아니라, 주변 구조물이나 근육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학생, 운동 선수,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인, 그리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 등에게서 많습니다. 다른 관절 질환처럼 턱관절 질환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2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폐경기 이후에 생기는 다른 관절 질환과는 달리, 주로 10대 후반에서 폐경기 이전 여성에게서 더 흔한데,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호르몬 변화나 정신사회학적 요소들에 의한 직, 간접적 영향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 턱관절 질환의 원인

사실 턱관절 질환이 왜 생기는 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바르지 못한 자세, 잘못된 식습관, 외상, 과도한 턱의 운동, 이갈이나 이 짹물기 등의 악습관, 교합의 부조화, 스트레스, 불안, 수면장애 등에 의해, 또는 여러 원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관절과 근육의 과부하나 긴장이 유발되어 생기고, 또한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불안, 우울증과 같은 심리요인들에 의해 증상이 더욱 복잡하게 되어 진단이나 치료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턱관절 질환은 크게 턱관절 및 부속물의 질환과 주변 근육 등의 연조직 질환으로, 각각은 또다시 세부 분류되는데, 나타나는 증상이나 징후는 비슷하여 더더욱 진단이 어렵습니다.

## 턱관절 질환의 증상

턱관절 질환이 있으면, 아프거나 소리가 나거나, 턱 움직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턱관절 또는 주변의 근육부위를 누를 때, 턱을 벌리거나, 좌, 우로 움직일 때 또는 어금니를 짹 물었을 때 생길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엔 가만히 있어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턱관절 자체는 혈관과 신경이 없지만, 주위 조직에 혈관과 신경말단이 많이 존재하여, 관절의 위치나 모양의 변화, 염증 등이 생기면 주위조직에 자극이 가해져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이갈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안면 근육의 과잉 수



축과 피로가 유발되면 근육통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턱관절 잡음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흔하게 나타나며 성인이 되면서 점차 줄어들기도 합니다. ‘딱’ 소리나, ‘지익 지익’ 등의 소리로 표현되는데, 이는 턱관절 및 주위 구조물이 관절운동 중에 마찰 또는 충돌에 의해 생깁니다. ‘지익 지익’ 하는 소리가 관절염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딱’ 하는 소리는 통증이나 기능장애가 없으면 특별히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능장애는 턱을 움직이는 데 제한이 있거나 턱이 좌우로 틀어지는 현상 등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 난 후, 혹은 음식을 씹는 도중에 갑자기 턱이 걸리면서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아래 턱을 좌, 우로 움직이거나 턱관절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 해주면 소리가 나면서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증상이 해소되지 않고 더욱 진행되면, 걸리는 빈도가 잦아지고 기간도 길어지며 지속적인 개구장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면근육의 통증이나 긴장성 수축에 의한 기능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 턱관절 질환의 치료

턱관절 질환의 치료는 상담, 약물치료, 장치 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와 외과적 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로서 상담 및 행동치료는 상담을 통해 환자의 일상 생활이나 습관 중 턱관절 질환을 일으킬 만한 것을 발견해서 개선시키는 과정이지만, 턱관절 질환이 대개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되고 증상이 복잡하게 되어, 불행히도 이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약물치료는 증상에 따라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또는 항우울제 등이 처방됩니다. 온찜질, 전기자극 요법, 침요법, 레이저 요법 등의 물리치료가 증상 개선을 위한 보조적인 치료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갈이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이용되어 온 교합장치는 교합의 안정을 유도하거나 인위적으로 그 위치를 바꾸어 주어 근

육의 긴장과 부조화를 개선하고, 이상적인 아래 턱의 위치를 회복하여 턱관절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과적 치료는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턱관절 기능장애가 지속적으로 있으며 호전이 되지 않거나, 영상촬영 검사상 턱관절 내 해부학적 변화가 심하거나, 그리고 관절 내 종양 등이 있는 경우 등에 시행됩니다.

### 턱관절 질환자의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턱관절 질환 환자분들에게 설명하는 주의사항을 열거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바르지 못한 자세, 잘못된 식습관, 외상, 과도한 턱의 운동, 이갈이나 이 꼭물기 등 관절과 근육의 과부하나 긴장이 유발되어 생깁니다.

- 딱딱하거나, 질기거나, 오래 씹는 음식은 피하고, 한 쪽으로만 음식을 씹지 않습니다.
-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않습니다. 특히 하품할 때는 턱 끝을 손으로 받쳐 주도록 하며, 소리지르기, 노래 부르기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턱에서 일부로 소리가 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 앉거나, 서거나 또는 누워있을 때 가능한 바른 자세를 갖습니다. 기대어 서거나, 머리를 기울이거나 옆으로 돌아 눕거나 턱을 괴는 습관 등은 좋지 않습니다. 볼펜 등을 입에 물거나 하는 습관들도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지는 것도 피하도록 합니다.
- 공부, 업무 등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며, 음주, 흡연 및 과도한 운동을 피합니다.
- 이갈이나 이를 꼭 무는 습관들이 있다면 이를 인지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온찜질이나 턱관절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시작한 지나친 운동 때문에 스포츠 손상을 입어 체중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당신이 진정 현명한 현대인이라면, 딱 한 가지만 잘못되었고, 그것만 수정하면 몸이 달라질 거라는 마술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

##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절대 똥똥해 지지 말라



이연지 교수 | 가정의학과(비만센터)

- 전문분야: 비수술적요법, 성인비만, 만성질환동반비만, 생활습관교정
- 진료시간 : 월, 수(오전), 화, 금(오후)
- 문의 : 비만센터 ☎032-890-3360

### 속기 쉬운 말, 말, 말들

당신의 남편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난 당신의 부드럽고 통통한 똥배가 사랑스러워~!' 라고. 당신의 가족들(특히, 부모님)은 당신을 볼 때마다 말할 것이다. '그 정도의 배는 인격이란다. 얼굴이 듬직하니 더 보기 좋다. 애야!' 라고. 심지어 당신의 주치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혈압도 혈당도 다 정상이니 허리둘레 조금 늘어나는 것은 별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신이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오래오래 기운차게 살기 위해서는, 똥살은 절대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없음을……

### 한 고비 넘어 또 한 고비

당신이 이런 말들에 속지 않고 똥살을 줄이기로 결심했다면,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여겨도 좋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은 지뢰밭과 같다. 건강해지고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똥살을 빼야 하는 목표는 하나인데, 똥살을 빼는 방법은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만약 당신이 무작정 굶는다면, 당신은 현명한 원시인에 가깝다(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굶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라니...). 일단, 운동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시간씩 헬스를 한다면, 2~3kg의 체중감량 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물론, 당신이 젊은 남자이고, 고도비만이 아니며, 술을 끊고, 세 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나쁜 간식을 먹지 않는다면 성공할 확률은 꽤 높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시작한 지나친 운동 때문에 스포츠 손상을 입어 체중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겠다. 당신이 진정 현명한 현대인이라면, 딱 한 가지만 잘못되었고, 그것만 수정하면 몸이 달라질 거라는 마술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

### 잘못된 다이어트는 건강의 적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비만센터의 전문의로서 환자들의 살(지방)을 줄여주는 것이 본업인 필자는 지인들



규 칙 적 인

생 · 활 · 습 · 관

이 다이어트를 시도하겠거나 약을 달라고 할 때 거의 거절하거나 말리는 편이다. 자신이 비만한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없이(비만한 사람들 대부분이 비만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대부분 몸 안의 지방은 줄이지 못한 채, 근육량만 감소시키고 뼈 및 피부의 단백질과 미네랄만 줄여서, 다이어트 후의 요요현상 (체중감량 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체중감량 전의 몸무게로 되돌아 가는 현상)과 노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요현상이 일어나면 감소했던 근육량은 늘지 않고, 오히려 체지방만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3개월 다이어트 하고 나서 6개월 후 몸의 늘어난 뱃살은 처지고 피부의 탄력은 감소하며 골밀도는 떨어져서, 빨리 늙기 십상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절대 다이어트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길이라.

### 제대로 된 다이어트의 시작은?

성공하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면 먼저, 나의 하루, 나의 일주일을 되돌아 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스스



로의 생활습관에서 뱃살을 늘이는 원인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중요도 순서대로 나열해 본다. 물론,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남들 눈에는 보이는 나쁜 습관이 본인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게 인식되고 있는 일들이 허다하다. 예를 들어, 매일 자기 전에 허기를 견디지 못하고 군고구마 1개를 먹는 A씨는 절대 고구마가 뱃살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구마는 당뇨에도 좋은 건강식이니 밤에 1개씩 먹는 것은 오히려 몸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전에 탄수화물 간식을 먹는 것은 일부러 뱃살을 늘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이다. 만약, 이것을 깨달은 A씨가 밤에 먹는 간식을 끊었다고 가정해 보자. 보통 사람들은 뱃살을 빼기 위해 좋아하던 간식까지 끊었으니, 당연히 저녁식사는 전보다 조금 더 부실하게(고기반찬 없이) 먹거나 양을 줄인다. 여기에 대부분 빠질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함정이 있다. 정상적인 저녁식사를 하여도 늦은 밤에 허기를 느끼던 나의 몸은 부실한 저녁식사 후의 공복감과 식욕을 참기가 너무 힘들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일주일을 버티기가 힘들어 진다. 어느 날 밤에 고

구마 3개를 허겁지겁 먹거나, 양념통닭을 시켜 먹게 되는 식욕의 분출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뱃살은 늘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보통 친구들은 짜증을 슬슬 낸다. ‘그럼 어찌라고?’

### 더 건강해지기 위한 다이어트

체중 감량보다는 체지방 감량이 더 중요하다. 체지방 감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보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몸의 욕구를 의지력으로 누르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해로운 것을 내 몸이 원하지 않도록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자극을 주며 즐겁게 다이어트를 유지해야 한다. 즉, 머리로 몸을 제어하려 하지 말고 몸이 실천하는 것을 머리로 느끼도록, 생활리듬을 조율해야 한다.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갖고 나쁜 음식으로 300칼로리를 먹는 것이 즐겁게 좋은 음식 500칼로리 먹는 것보다 더 뱃살을 늘이고 건강을 해친다.

###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항노화 체중감량!

다이어트 후에 당신은 더 활동적인 사람이 되며, 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넘쳐야 한다. 당신의 몸무게가 더 가벼워졌다거나, 당신의 허리가 더 날씬해진 효과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두뇌도 더 젊어지고 당신의 피부도 더 탱탱하며 당신의 관절은 더 부드러워져야만 한다. 당신이 뱃살을 늘이는 동안 소외되어야 했던 뇌와 근육으로 더 많은 영양소가 보충되고, 활력을 찾은 뇌가 분비하는 엔도르핀과 긍정적인 스트레스 신호에 전신이 반응하며, 새로이 시작한 운동으로 노폐물은 몸에서 빠져나가고 가늘던 팔다리는 근육이 붙어 팽팽해져야 한다. 다만, 항노화 체중감량의 유일한 부작용으로, 뽕뽕했던 얼굴이 가름해지면서 눈가에 주름이 늘었다면, 살짝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도록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다.



다양한 분야의 비만 전문가들이 모여, 협력 진료를 하는 **인하대병원 비만센터가 2008년 9월 오픈** 하였습니다. **이연지 교수**는 비만센터에서 복부 비만자를 대상으로 항노화 비만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나는... 밥 짓는 약사

글 · 조래정 약사 | 약제팀



가끔 애들과 아내가 외출하고 없는 동안 혼자서 점심을 해결할 때가 있다. 이럴 때면 밥도 알약 하나 먹듯이 간단하게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에 '드마리스' 같이 맛있는 샐러드 바에서 식사를 할 때면 먹고 싶은 것은 아직 많은데 벌써 배가 불러 아쉬울 때도 있다. 이렇듯 음식은 살아가는 도구이기도 하면서 그 자체가 즐거움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음식을 전혀 섭취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영양섭취를 해야 할까?

가사분담이 기본이 되는 세상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 집에서 밥을 지어 본 적은 없다. 하지만 병원에서 날마다 신생아, 소아, 성인의 식사를 준비해 왔다. 경구투여(oral feeding)나 관급식(enteral feeding)이 힘든 환자의 식사를 만들어 정맥으로 투여한다. 이것이 바로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 정맥영양)이다.

TPN이 필요한 경우는 소화흡수 장애, 만성 설사, 심한 구토 등 때문에 입으로 먹지 못하거나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경우, 위장관 누공으로 위장관을 쉬게 하는 경우, 암이나 심한 화상으로 먹어도 충분한 영양섭취가 되지 않거나, 영양요구량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간부전 신부전등 비정상적인 대사 상태로 인해 특수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처음에는 Nutriflex(TPN 상품명)를 사용하였는데 중심정맥용 제품과 말초정맥용 제품을 사용하였다. 2000년 이후 상용화된 TPN제품을 사용하면서 절약된 시간은 외래항암제를 조제해 주는 서비스로 바뀌었다. 따라서 약제팀에서는 이제 입원환자의 병동 항암제, 외래환자의 외래항암제 조제와 신생아, 소아 TPN조제와 일부 일반주사제 조제를 서비스하고 있다.

보통 성인의 식사의 구성을 보면 밥, 고깃국,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다. TPN도 밥에 해당하는 탄수화물(포도당)부분과 고깃국에 해당하는 단백질(아미노산)부분 2개로 나뉘어져 있고, 반찬에 해당하는 전해질이 혼합되어 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 2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일명 two bag이라고도 한다. 2000년에 two bag이 수입품 Nutriflex 한 가지였고, 국내에서는 생산하지 못했다. Two bag의 bag재질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가 사용할 때 포도당과 아미노산 사이에 막혀있는 격막을 터트려,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격막을 만드는 기술력이 없어서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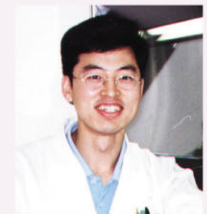
산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얼마 후 국내에서도 개발에 성공해서 2008년 초부터 우리병원에 몇 개 제품이 추가로 들어왔다. two bag에 지방을 추가한 제품을 three bag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맥영양 공급은 심각한 대사성, 감염성, 카테터 관련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 경장영양도 흡인, 설사, 감염 등 잠재적 합병증이 가능하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급이 중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영양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영양집중지원팀(NST ; Nutrition Support Team ; 본원 NST 팀장은 외과 안승익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 동안 병원의 주요 치료법은 4가지로 거론되어 왔다. 수술요법, 물리요법, 정신요법, 약물요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영양 불량상태가 환자 본래의 질환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여, 수술 후의 합병증, 봉합부전, 감염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정확히 진단, 교정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단순한 경구적인 영양공급을 넘어서 환자의 질환, 변화상태, 영양 상태를 고려한 최적의 영양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그 결과물이 TPN이다. 영양요법(Nutrition therapy)면에서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TPN에 대하여 혹자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기도 한다.

"Parenteral Nutrition, it has already proved its value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rapeutic modalities in this century and perhaps in the history of medicine."

꺼져가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나는 오늘도 열심히 밥을 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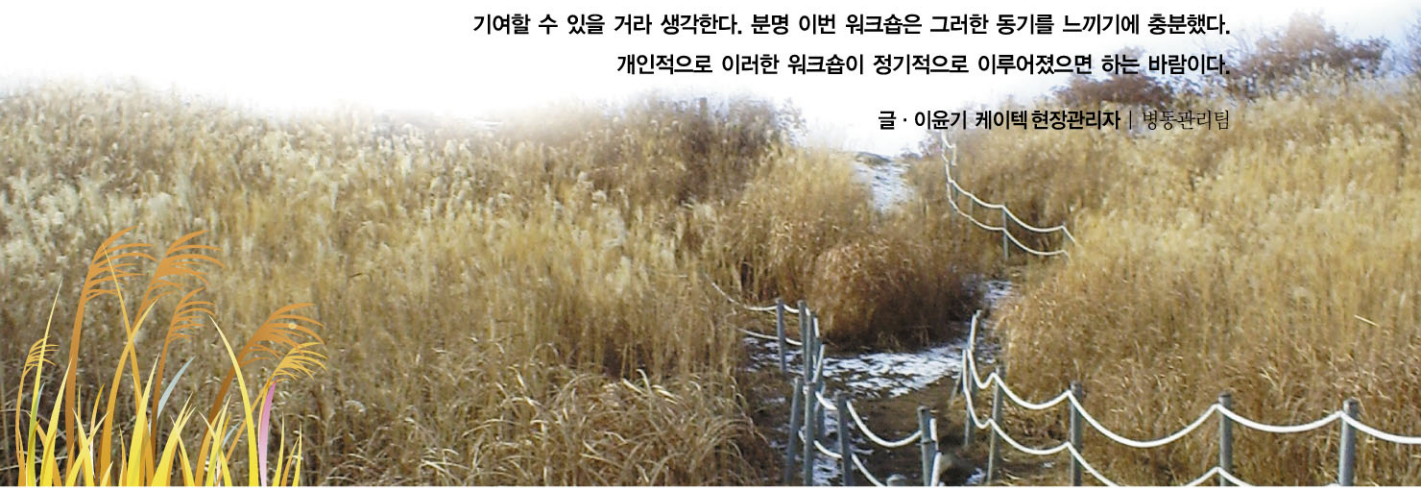
▼ 사진 맨 왼쪽이 필자



## 동료애를 다지며 쌓인 친분 병원생활에 자신감과 활력 얻어

모두들 마찬가지겠지만 어디에 속해 있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노력한다면 분명 우리가 속해있는 인하대병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분명 이번 워크숍은 그러한 동기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 이윤기 케이텍 현장관리자 | 병동관리팀



11월 21일 오전 8시 20분.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 둘 병원 현관문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서로 얼굴들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친분들이 없어서일까? 어색한 인사들로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다. 나에게도 사실 병원에 입사한 뒤 처음으로 떠나는 워크숍이라 조금 마음이 들떠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것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하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고 몇몇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두 세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덧 우리가 묵을 숙소인 산정호수에 도착했다. 상쾌한 숲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실 새도 없이 곧바로 세미나실로 모였다. 자신의 이름이 크게 쓰여 있는 명찰을 목에 걸고 자리에 앉으니 인사교육팀장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모이게 된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다.

어느덧 자기소개 시간, 앞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긴장되기 마련일 텐데 하나같이 자

기소개들을 유창히 잘한다. 새 학년이 되고 새로운 반을 배정받아 첫 등교 하는 학생들처럼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개인소개가 끝날 무렵 서로의 어색함은 우리들의 웃음소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어서 분임토의시간, 서로의 부서들이 갖고 있었던 고충들을 이해, 조정하며 현장관리자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초빙된 노무사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었다. 반나절이 걸린 강의와 토의를 통해 현장관리자로서 워크숍에 참석한 모두는 책임감들로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하지만 맛있는 저녁식사와 이어지는 긴장을 푸는 즐거운 시간들을 통해 동료애를 다지고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앞으로의 병원생활에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었다.

그렇게 첫날을 보내고 이튿날 명성산 산행이 있었다. 이른 아침이 제법 쌀쌀한지라 모두들 두터운 재킷을 입고 산행을 시작했지만 얼마 오르지 않아 서서히 하나 둘씩 재킷을 벗기 시작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나는 카메라를 들고 올라가면서 이것저것 찍으려 속도 맞추려 약간 힘든 게 아니었다. 어느덧 갈대숲이 있는 정상에 도착, 신선한 공기와 내려다보이는 광경은 힘들게 올라온 고생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였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잡고 내려와 먹은 우렁된장국과 파전도 일품. 역시 등반 후 먹는 점심은 꿀맛 그 자체였다. 잠시 산정호수 절경을 둘러본 뒤 인천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모두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을 열정적으로 참여해서인지 돌아오는 차안은 굶아떨어진 숨소리만 들렸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인사팀 직원들이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한 그들을 지원하려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모두들 마찬가지겠지만 어디에 속해 있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노력한다면 분명 우리가 속해있는 인하대병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분명 이번 워크숍은 그러한 동기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11월 21일 ~ 22일 장소 : 한화리조트 / 산정호수



# 이색체험, 모델 데뷔~

지난 가을 부친 송내 소재의 쇼핑몰 외벽과 광고지에 낯익은 얼굴이 등장하였다. 숨겨둔 미모를 뽐내며, 모델도 부럽지 않은 자태의 그들은 다음아닌 우리의 동료, 인하대병원의 미즈 3인방이었다. 그녀들을 만나보았다.

정리 · 이지현 | 대외협력홍보실



## 간 령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간 령 :** 산부인과 체외수정실에서 근무하는 간령입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과정 중 난자채취 후 선별, 정자처리, 체외수정, 배양 및 이식 전 준비까지의 과정과 실험실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담간호사 김민경입니다.

**김재령 :** 진단검사의학과 임상화학파트 수석병리사 김재령입니다. 임상화학 파트는 일반화학과 응급화학이 속해 있으며 일반화학은 정규 임상화학 검사를 하고, 응급화학은 24시간 근무부서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병동 등에서 응급으로 요청하는 응급 화학 검사들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요, 어떤 기회로 모델로 선정되셨나요?**

**간 령 :** 본원 동료직원 중 가족이 쇼핑몰 운영부서에서 근무 중인 분으로부터, 쇼핑몰 지역에 거주하고, 주부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줌마 모델 이벤트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위 직원들을 모델로 소개만 하려고 했는데, 막상 사진촬영 일자가 잡히자 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다들 고사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따라 탈런트 시험 보러 갔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내가 땀더라 식이죠^^

**김민경 :** 그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저에게 모델 제의를 했으나 산후붓기로 나가질 못했었는데, 제 웨딩 사진을 보신 분께서 "바로 이 얼굴이야!!!" 하시면서 저에게 모델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재령 :** 저 역시 모델로 제의를 받으신 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거절을 하신 관계로 저한테까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촬영 중 또는 촬영을 결심하기까지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혹, 촬영 후 선물, 쇼핑몰 이용 시 특전(?) 추가적인 모델제의 등이 없으셨는지요?**

**간 령 :** 내 생애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싶어서 대타라도 좋고 하고 큰 맘 먹었죠. 촬영하고 나니 모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진작가 팀이 다 알아서 해주더군요. 신부화장 이후 처음으로 속눈썹 붙여봤구요. 옷도 사이즈에 맞게 다 fitting해주고, 조명발 세워주고 에 하는 사이에 굳어진 저를 웃겨가며 필요한 사진 다~찍어서 어떻게 찍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촬영 때 입었던 옷은 수선해서 판매 못한다고 입고 가라고 주더군요. 나중에 사진CD와 광고전단샘플, 액자 선물을 받았습니.

**김민경 :** 전문직을 가진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에 '이제 주부구나' 하며 아쉬움이 밀려왔으나 가게를 생각하라는 신랑의 강권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생겨 생활의 활력이 되어 그것 자체로 감사했는데 사진에 나온 옷을 전부 주신다는 말에 두세 겹 마구 꺼입고 싶었으나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김재령 :** 제의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응했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무척 반대를 하더라고요. 막상 촬영하고 나서 사진을 보더니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은근히 자랑을 했다 보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진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친구한테 전화해서 쇼핑몰에 한번 가보라고 은근히 자랑도 하고요(웃음). 그 후 한동안 쇼핑몰 근처에 가지를 못했죠 너무 사진이 많이 걸려 있어 엄청 썩스럽더라고요^^





김민경

**전단에 게재 된 모습을 본 주위 분들(가족, 직장동료 등)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또 본인은 만족하시는지요?**

**간 령 :** 광고지 보시고 주위에서 전화 및 문자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포기한 동료들이 엄청 후회하더군요^^ 다음 기회에 꼭 같이 하자고 부탁하던데요?

약 한 달 동안 안팎으로 제 사진이 도배된 쇼핑물을 오가며 참엔 어색하고 부담스럽더니, 막상 떼내고 다른 사진 걸리니까 서운하던걸요?

**김민경 :** 쇼핑물을 이용하던 친구들이 "민경이 다했네? 앵?? 민경이 맞아???" 하며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저의 산후 붓기부터 현재까지 지켜보고 도움을 주신 박지현 교수님은 흐뭇해 하셨고, 남편 직장사람들은 남편에게 "능력 좋구만"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실물을 숨기기 위해 절대 남편 직장 근처는 가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100% 만족입니다.

**김재령 :** 직장동료들은 인사말인지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었고, 집에서도 딸들은 조용한데 남편과 아들이 맘에 들었나 봐요^^

**매우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 이번 이벤트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간 령 :** 같은 직장 동료 두 분과 함께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간만에 즐겁고 유쾌한 경험을 해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사진에 우리병원과 근무부서가 같이 나와서 병원 홍보에도 작은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광고지사진 오려서 둘째 아이 학교 가족신문 기사로 사용해서 우수상도 받았어요.



김재령

**김민경 :** 결혼한 지 만 3년인데요, 신랑이 사진 찍을 때 제 모습 궁금하다고 사진 찍어주려고 휴가까지 내고 같이 거주했어요. 웨딩 사진촬영 이후로 다시 한 번 설레임을 느끼게 되고, 생활 속에서 작은 활력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재령 :**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그냥 일상적인 모습에서 조금은 새로운, 다른 모습으로 모험을 해볼 수 있어 무척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 령 :** 새해에는 직장에서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제가 되고 싶네요. 이런 기회를 준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김민경 :** 바람에 필력이던, 쇼핑물 기둥을 휘감고, 건물 벽면을 장식한 사진 속 그녀, 제가 맞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요즘처럼 힘든 시기 인하대병원 가족들 모두 파이팅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그 사진에 나온 모습 그대로 환자들에게 웃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김재령 :** 사진에 <인하대병원>을 표기 한다고 하여, 많이 쑥스러운데도 다들 실명을 쓰는 것도 허락하며 촬영했어요. 또 다른 낯선 사람들과 일을 했으면 그렇게 편안한 표정이 안나왔을텐데 역시 같은 식구들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좀 더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같이 일해서 행복합니다^^

# 10년간 인하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김송미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심장 질환 발병 약 2시간 후에 '대동맥 박리'라는 병명으로 20시간 이상 응급 수술 끝에 장례 준비를 할 정도까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고 60일간 1인실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장 질환의 권위자이신 심장내과 이우형 교수님의 외래 치료를 시작으로 벌써 10년을 채우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의약분업 파동, 노사분규 등등 의료계에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도 많이 지켜 보았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환자들의 아픔을 약점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비판적이며 웃음을 잃었을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생의 희망을 안겨주고 웃음을 내게 되찾아 주신 본인 내과에 근무하시던 김송미 간호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칠, 팔십 명의 환자가 찾는 심장내과는 진료과의 특성상 노년층 환자들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불평 불만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일일이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인도 고회를 넘어 망팔을 받아보는 은빛 속에 묻혀가는 인생 황혼기 중증 심장질환자로서 때로는 급할 때 신속하게 대처해 치료 받을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 분업 파동 때 처방전이라도 받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환자들이 애를 먹일 때, 담당 환자들을 일일이 돌보아 주시려고 땀땀을 틈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니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김송미 선생님!

어엿한 두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셨다고요.

가정에서도 효부로서, 현모양처로서 주위의 귀감이 되실 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소화기내과로 소속은 바뀌어도 계속 진료에 도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무관심과 두려움에 대상이며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미흡한 점을 충족시켜 주며 자기를 기억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주기를 바라는 것이 노년층 환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진료 중 대화가 잘 안되고 갈등이 생기면 자제하지 못하고 불편 불만을 토하기가 일수이고 옆에서 거드는 것이 환자들의 입장입니다.

김송미 선생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의 고통을 잘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더욱 더 바랍니다.

진료에 열중하시는 의료진과 친절을 베풀어 주신 여러 간호사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하대병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8. 12

심장내과 혈액종양내과 외래 환자 윤찬희 올림



## 똑소리 나는 약 보관법

### Q: 약을 보관할 때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A:** 약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약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이 많은데 약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습기 때문에 오히려 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생물질이나 인슐린 같은 약들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그 약효가 충분히 유지되는 약물도 있습니다. 처방 받으신 약을 보관하실 때에는 처방 용기에 그대로 보관하시고 처방 받은 시기에 먹고 남은 것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 ① 알약 : 원래의 의약품 용기에 넣어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알약이 들어있는 병이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병 속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햇빛을 피해 보관해야 한다.
- ② 가루약 : 가루약은 알약보다 유효기간이 짧고 습기에 약하므로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넣을 경우 습기로 인해 약이 손상 될 수 있으므로 냉장보관은 금물이다.
- ③ 연고 : 용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잘못 사용하기 쉽다. 용기에 구멍이 나 있거나 개봉한지 1년 이상 지난 약은 습진이나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버리도록 한다.
- ④ 소독약 : 상처 소독에 쓰는 알코올, 과산화수소수 등은 뚜껑을 열어 두거나 직사광선을 오래 쬐면 효과가 없어진다. 따라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해야 하며 너무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다.

### Q: 시럽제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A:** 일부 시럽약, 특히 타이레놀 시럽 같은 약은 현탁액이므로 냉장 보관을 하면 약 성분의 침전이 일어나기도 하므로 실내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약도 있습니다. 원내 처방으로 조제되는 아모크라듀오, 오구멘틴, 바난, 시클러 시럽약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코판, 프로스판, 타이레놀 등의 시럽제는 개봉 이후 감염과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3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용 전 냄새나 색깔을 반드시 확인하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3327 | 야간 032) 890-3315

실내에서 몸짱 S라인 따라잡기

## 제자리에서 빨리 걷기, 덤벨로 근육강화 운동



1월이 되면 몸짱과 S라인 따라 잡기 열망으로 아름다운 몸, 강인한 체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스포츠센터에 모입니다. 그리고 2, 3월이 되면 포기하고 남은 돈을 환불받기 위해 재 방문 하게 되죠. 헬스클럽에 가야지만 운동이 된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께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근육강화 운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 최석인 운동처방사 | 비만센터

**매해** 1월이 되면 몸짱과 S라인 따라잡기 열망으로 아름다운 몸, 강인한 체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스포츠센터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2·3월쯤 되면 포기하고 남은 돈을 환불받기 위해 재방문 합니다. 또한 쇼핑물에 가면 다이어트 음식과 용품, 운동기구, 체지방측정용 체중계, 특수 운동화부터 골반방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인기에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 역시 시간이 흐르면 트레드밀은 값비싼 빨래건조대로, 짐볼은 아이들장난감으로 집안 구석 구석에 자리 잡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운동은 꼭 헬스클럽에 가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내에서 제자리 빨리 걷기를 하고 가벼운 덤벨과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근육강화 운동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내에서 제자리 빨리 걷기를 하고 가벼운 덤벨과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근육강화운동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의학의 발달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

고 그에 따라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운동을 통한 예방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운동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운동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운동에 대한 강한 소망과 의지가 실망과 실패의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힘들었던 사건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우선 본인의 건강·체력상태, 질병유무와 기호도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한 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겨울철 운동의 주의점

그럼 여기서 겨울철 운동의 주의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그날의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전날의 음주, 흡연, 컨디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맥박이 빨라졌거나 허리, 손, 발 등에 통증이 있을 때 방치하지 말고 관찰한 뒤 운동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체온유지를 위해 보온에 신경써야 합니다. 체온손실을 막기 위해 겉옷은 추위를 차단할 수 있는 옷으로, 속옷은 면 소재로 입어 땀의 흡수를 빠르게 합니다. 장갑, 모자, 목도리 등을 착용하고 운동 후 땀이 식게 두지 말고, 빨리 목욕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이나 노인들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셋째, 질환이 있는 분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의 차가운 기온은 체온을 떨어뜨려,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되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전 11시 이후에서 3시 사이의 따뜻한 햇빛이 있는 시간이나 몸이 충분히 활성화된 저녁시간이 좋습니다. 만성질환자와 근골격계 질환자들 모두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준비운동을 더욱 철저히 하며, 안전을

위해 실내운동이 권장됩니다.

넷째,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활성도 역시 떨어져서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부상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영하의 온도에서는 근육의 온도가(본 운동을 위해 평소보다 피부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야 함) 쉽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벼운 체조를 하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맥박이 연령 대비 최대 심박수의 40% 이상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최대심박수: 220-자기나이). 이 정도의 강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느낌으로는 이마에 땀이 약간 맺히는 정도입니다. 또한 본 운동을 마치고 정리운동을 해줌으로써 젖산축적으로 인한 피로를 방지하고, 갑작스럽게 활동이 멈춰짐으로 인해 하체에 혈액이 고여 나타날 수 있는 어지럼증이나 근육경직을 막을 수 있게 하여 겨울에는 꼭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 겨울철 실내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1. 손가락을 깎지 끼고 머리위로 손바닥이 향하게 한다. 호흡을 뱃으면서 시행하세요.



2. 두 팔을 귀 옆으로 붙여 머리 위쪽으로 쭉 펴고 한 손으로 반대쪽 손목을 잡아당겨주세요.



3. 오른쪽 팔꿈치를 왼손으로 잡고 머리 뒤쪽으로 지그시 잡아당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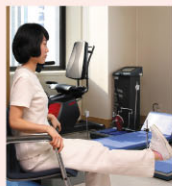
4. 얼굴은 오른쪽을 보고 팔꿈치는 왼쪽 어깨 쪽으로 당겨주세요.



5. 하퇴 쪽 무릎 앞부분을 잡고 서서히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6.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좌, 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특히 힘을 신고 다니는 여성분들의 사고 예방에 효과적).



7. 의자 옆의 손잡이를 잡고 한쪽 다리를 들어 수평으로 편 상태에서 멈춰주세요(발등을 몸쪽과 발바닥 쪽으로 번갈아 가며 최대한 당겨주세요).



8. 상체에 힘을 빼고 몸을 숙여 몸통과 머리를 앞쪽으로 기울여주세요(가능하면 손끝이 발끝에 닿도록).

● 의자에 앉을 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똑바로 세우고 바르게 앉주세요.

● 한 동작 당 10~15초를 유지해주세요.

● 가능하다면 실내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빨리 걷기 동작을 5~10분 정도 해주세요.

● 반대방향으로도 시행해주세요.

# 햇살보다 눈부신 치료사들의 열정과 건강한 내일을 열어가는 병원으로

2007년 10월 개원한 재활전문 힐링스병원을 찾았다. 가슴이 따뜻한 병원, 안방 같은 병원을 만들고 싶다는 조 호 원장은 초일류, 초우량, 세계적이라는 큰 의미보다 건강한 내일을 열어가는 동네병원이면 만족한다고 한다.

## 힐링스병원\_ 조 호 원장



내과와 재활의학과를 진료하는 3명의 의료진과 100여 명의 힐링스병원 직원들은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손상의 재활치료, 척수손상 환자, 근골격계 수술 환자의 재활치료에 힐링스만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와 보호자를 배려한 인테리어와 편의시설로 병원을 꾸며 편안한 치유 공간을 제공한다.

국내 최초로 환자 침상마다 TV를 설치하였는데 역시 장기 입원 환자를 배려한 것인데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 병실운영도 질환별로 분류하였고 공동간병인 병실을 두어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힐링스병원의 최대 장점은 전 층을 물리치료실로 사용하고 있어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이 치료실을 넓고 밝게 꾸민 이유는 햇빛을 받고 밖을 보며 환자들이 밝은 미래를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치료실로 들어서니 전망이 탁 트이고 좋다. 운동치료, 작업치료, 통증치료를 받는 환자의 얼굴에도 따뜻한 햇살이 담겨 있었다. 환자들과 치료사들의 손길은 각자대로 바쁘고 정성스럽게 움직이는

40여명 치료사의 열정이 햇살보다 눈부시다.

조 원장은 의료수가 등의 문제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는 경우 참 마음이 불편하다. 재활치료라는 것이 꾸준하지 않으면 굳어 버리는 것이 문제라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때면 처음처럼 되어있어 호전이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인하대병원에 대하여 너무 좋아서 탈(?)이라고 말한다.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상태가 안 좋은 환자에 대한 커버도 좋을 뿐 아니라 재활치료에 대한 전원 시스템도 만족스러워 더 많은 협진의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에서 관리하기 힘든 환자가 내원하여 상태가 좋아지고 지쳐가는 보호자도 힘을 얻을 때 보람을 느끼는 조 원장이다. 내 돈은 돈이 아니냐며 고쟁이 속에서 1만원을 놓고 나가시던 할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정도로 전율이 느껴진다는 조 원장, 큰 병원보다는 의술을 목적으로 동네에서 따뜻하게 남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힐링스병원을 희망으로 가득 메울 듯하다.

●인천시 서구 석남동 ☎ 032-577-2000 글·이정희 | 자유기고가



**류정선 인하의대 교수, BRCA1 유전자 변이 따라 생존을 차이 밝혀  
“특정 조합 환자에서 표준 항암요법 상대적 불리, 대책 마련해야”**

폐암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요인을 인하대병원 의료진이 찾아냈다.

류정선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는 12월 11일 BRCA1 유전자의 특정 조합을 갖고 있는 폐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 보다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같은 치료를 시행해도 특정 환자가 다른 환자 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 중 하나를 분석해낸 것.



류 교수에 따르면 인하대병원에 입원해 항암화학치료를 받은 비소세포폐암환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혈액 샘플을 채취해 BRCA1 유전자의 변이에 대해 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AACC' 조합을 2개 갖고 있는 폐암 환자는 평균 8.5개월 살아 있었던 반면, 'AACC' 조합이 없거나 1개만을 가진 환자는 평균 14.6개월을 생존해 생존기간이 두 배 가까이 길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편평상피세포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AACC 조합이 2개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 BRCA1 유전자는 그 동안 유방암·난소암 등 여성암에서 많이 연구됐지만, 폐암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 성과가 드물다.

류 교수는 “BRCA1 유전자 변이의 특정 조합을 갖고 있는 폐암 환자에서는 현재 시행되는 표준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맞춤치료의 일환으로 어떤 환자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사망하게 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런 환자에게는 현재 사용하는 항암처방 말고 다른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이어 “환자에게 부작용과 고통이 따르는 조직 검사 대신 혈액 검사만으로 맞춤의학을 적용할 수 있다면 환자의 편의성 확보 측면에서 한 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종양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미국임상암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게재됐다.

**JCI 인증 추진 선포식 ●**

1월 2일 대강당에서 2009년도 시무식과 더불어 JCI 인증 추진 선포식을 가졌다.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의료서비스의 Global Standard로 인식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이다.

동북아 Mediport를 지향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의 JCI 인증 추진은 의료시장 개





방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일 뿐만 아니라 해외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요소임을 감안하여 해외환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본원으로서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몽골 국립 제3병원과 진료협력 협약 체결 ●**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국립 제3병원(병원장 바출룬)과 11월 18일 인하대병원에서 진료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몽골 제3병원과 상호 환자진료 및 최신 의학정보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의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몽골 국립 1, 2, 3병원 모두 본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몽골 현지 환자가 인하대병원을 찾아와 치료를 받는 몽골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동북아 메디포트를 지향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협력의료기관 초청 세미나 개최 및 협력병원 협약 체결 ●●**

11월 13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협력의료기관을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및 협력병원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현희 국회의원의 '의료계 현안 및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법 개정 현황' 과 송형석 회계사로부터 '병원경영 환경변화와 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강이 있었고, 46개 의료기관에서 130여명의 병원장과 진료과장이 참석하여 상황리에 마쳤으며, 한편 세미나에 앞서 가천인 지재활병원 외 4개 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IFEZ-인하의료원 - 유타 약대, 공동연구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11월 19일(수) 11시 인하의료원(의료원장 이두익)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현석, 이하 IFEZ)과 미국 유타대학교 (The University of Utah, 보건담당부총장 Lorris Betz) 약학대학과 함께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약물전달시스템 및 신 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소 (Drug delivery and Advanced therapeutics Global R&D center)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향후 이 연구소는 바이오센서, 진단 및 치료의료 기기 등 다른 분야로도 그 연구 영역을 확대할 예정







이며 궁극적으로 약물전달시스템 및 신 의료기술 개발연구의 세계적인 연구 개발 센터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업무협약체결 ●**

12월 11일 본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국제협력증진과 인도주의 차원의 북한 및 개발도상국, 외국인근로자와 재외동포 보건의료 수준향상을 위하여 해외 긴급재난 구호활동을 협력하고, 특히 해외긴급재난 발생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의료지원팀' 구성, 파견에 적극 참여하기로 상호협약을 체결하였다.



**주한 미 육군 의무대와 진료협약체결 ●●**

12월 18일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은 주한 미육군 의무대(U.S ARMY MEDDAC KOREA, 병원장 Ronald Smith)와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미군 의무대에서 의뢰한 군인 및 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상호 환자진료와 의학정보 교류 등 협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한 미 육군 의무대는 엄격히 인증된 의료기관 만을 선별하여 진료협력을 체결하고 있으며, 인하대병원은 인천지역 최초로 진료협력을 체결하였다.



**인천대학교와 지정병원 협약체결 ●●●**

12월 22일(월) 인하대병원은 인천대학교와 지정병원 협약을 통해 600여 교직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승림 병원장은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인천대학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질병 진료, 건강검진 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공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구촌 한가족 캠페인- 베트남 환자 퇴원 ●●●●**

11월 11일 (화) 지구촌 한가족 캠페인 수혜자 베트남 덩티리엠(46세 여) 씨가 산부인과 송은섭 교수님의 하이프 시술로 자궁섬유종을 치료하고 퇴원 했습니다. 박승림 병원장과 송은섭 교수는 퇴원 축하인사와 함께 퇴원 기념선물을 전달했다. 지구촌 한가족캠페인은 2008년 말 까지 총 7명의 외국인신부 가족을 초청하여 질병 치료는 물론 가족과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제공하였다.





**찾아가는 건강강좌 실시 - 대한생명보험 ●**

11월 19일(수) 대한생명 인천지점을 찾은 외과 김세중 교수는 유방암 관련 건강 강좌를 실시했다. 대한생명보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좌는 대한생명 측의 요청으로 마련되었다.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천지역에 유방암 예방과 조기진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Global MD 관계자 본원 방문 ●●**

11월 23일(일) 미국 최대 Medical Travel 회사인 Global MD관계자(Amanda Hayes Kibread)가 본원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였다.

Amanda Hayes Kibread씨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1월 20일 개최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08 국제 의료관광 컨퍼런스'에 참석자로서 우수병원 답사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본원 견학을 희망하여 방문하였다.



**2008년 재난훈련 실시 ●●●**

12월 9일 본원 강당에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였다.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 추락에 따른 기상 상황을 설정하고 실시한 재난대비 훈련으로 응급의료센터 주관 하에 병원의 모든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재난대비 훈련에 임하였다.



**'인하가족 행복나눔 콘서트' 성료 ●●●●**

12월 5일 오후7시부터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인하가족 행복나눔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400여 명의 참석자들은 행복 나눔 콘서트를 통해 작은 정성을 모아 불우한 이웃을 돕고, 콘서트도 즐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하가족과 함께하는 환자위안의 밤 - 크리스마스 칸타타 성료 ●●●●●**

12월 12일(금) 저녁 7시, 3층 강당에서 본원 힐링헌츠 동호회가 준비한 성탄 칸타타에 150여 명의 환자와 가족들이 참여하여 위로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움직이지 못해 침대에 누워서 참여한 환자가 두 명이나 있어 힐링헌츠 뿐만 아니라 참석한 청중들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준 시간이었다.





**대한항공 점보스 - 프로배구 의료지원 ●**

11월 23일(일) 인천도원실내체육관에서 2008-2009 V-리그 인천 개막전에 정형외과 이계왕 전공의와 진료협력실 이복영 간호사가 의료지원을 해주었다. 2009년 4월까지 계속될 대한항공 점보스 경기에 의료지원이 될 예정이다.



**SK 와이번스 '사랑의 팬 사인회' 개최 ●●**

본원과 지정병원 체결이 되어 있는 SK와이번스가 12월 8일 본원 1층 로비에서 팬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팬 사인회는 그동안 야구장을 찾을 기회가 없었던 어린이들에게 야구선수들과의 만남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하고 강한 투병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번 팬 사인회에는 한국시리즈 영웅 이승호와 정근우, 조동화, 나주환이 참여하였으며, 사인회와 함께 어린이들과 어울려 함께 기념촬영 시간도 가졌습니다.

**SK 와이번스 선수단 본원에서 종합검진 ●●●**

12월 12일 오전 8시30분 병원 3층 건강증진센터에서 프로야구 SK와이번스 선수단을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검진에서 SK와이번스 선수단은 소화기검사, 폐기능검사, 복부초음파 등 10여 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았다.



▲ 안과 검사중인 김광현 선수 ●●●

SK와이번스 관계자는 "검진결과는 선수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되며, 앞으로도 지정병원인 인하대병원에서 매년 선수단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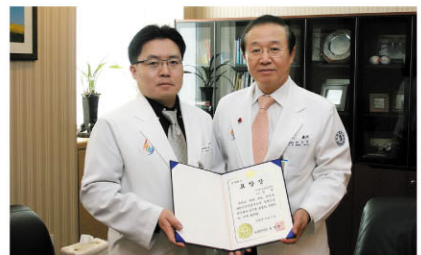
**인하대병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감사패 받아 ●●●●**

12월 31일 본원은 재해 어선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어업인 정책보호사업 정착에 기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응급의학과 김 훈 전임의 외교통상부장관 표창 ●●●●●**

12월 31일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김 훈 전임의는 2008년 6월 5일부터 15일(10박 11일)까지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의 일원으로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지역인 공양곤 일대에서 의료봉사를 했으며,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에 공로를 인정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 자원봉사자 모집

인하대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봉사해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1. 자 격

- ① 만 60세 미만으로 주 1회(3시간) 최소한 6개월 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
- ② 각종 교육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 ③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

③ 행사 참여 : 야유회, 송년회, 간담회

④ 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

⑤ 의료비 감면 (6개월 이상 봉사자)

⑥ 자녀(중고생) 인하대병원 학생자원봉사활동 참여 우선 자격 부여

### 2. 봉사활동시간

- 오전 : 9시 ~ 12시 / 오후 : 1시 ~ 4시

### 3. 봉사자에 대한 예우

- ① 3시간 이상 봉사 활동시 식권 지원
- ② 봉사당일 무료주차



### 봉사활동 부서별 내용

활동부서	대 상	활동내용
소아청소년과	입원, 외래환아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동화구연
외래안내	내원객	진료상담, 진료실, 검사실 위치안내, 동행안내
도서대여	입원환자, 보호자	무료도서대여, 반납, 정리
이미용 봉사	입원환자	이미용(병동방문)
호스피스	입원환자	세발, 간병, 목욕, 말벗
진료지원부서 (중앙공급실/수술실/세탁실)		진료재료 공급, 거즈나 붕대접기, 의료소모품 정리 환자가운 등 세탁물 정리

● 문의 : 지하 2층 자원봉사실 담당 - 신소영 ☎032-890-2873

## 파랑새 소식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홈페이지 [www.inha.com](http://www.inha.com) > 여성암센터

▶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http://cafe.daum.net/inhabluebird) ▶ 문의 여성암센터 ☎ 890-2560

### 여성암 센터 교육 및 유방암 환우회 파랑새 행사 공지



#### 파랑새 송년의 밤 개최

12월 12일 200명 정도의 유방암 환우분과 가족분들이 모여서 즐겁고 뜻 깊은 송년파티를 가졌습니다.

특히 수술한 지 10년째 되신 환우 네 분이 참석하시어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 파랑새 정기총회 안내

- \* 일 시 : 2월 5일 오후 2시
- \* 장 소 : 병원 3층 강당
- \* 안 건 : 파랑새 회장 선출 및 임원 선출 예정

# 인사동정

## 보직임명

정형외과 김명구  
(명. 골,조직은행장 겸 의료관리자)

## 표창

### ●친절봉사직원

교육수련부 장지훈, 장진혁  
병동간호팀 최서희, 김선미,  
김민희

### ●친절봉사직원

특수간호팀 임선혜  
외래간호팀 김송미

### ●친절봉사직원

진단검사의학과 나현수  
재활의학과 김지선

### ●친절봉사직원

원무보험팀 이은정  
진료협력실 이동열

### ●공로직원

호흡기내과 류정선  
재무팀 천현석  
원무보험팀 석현숙

## ●임상연구우수교원

류마티스내과 박 원  
소아청소년과 홍영진

## ●친절봉사부서

특수간호팀(7병동) 김순희 외  
재활의학과 한윤교 외

## ●공로부서

영상의학과(CT실) 최경화 외

## ●인하홍보인상

최우수상 산업의학과 임종한  
우수상 내분비내과 김용성

## ●10-10-10 캠페인 최우수상

특수간호팀 이윤경 외

## ●10-10-10 캠페인 우수상

병동간호팀 조의영 외  
시설관리팀 전현석 외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외

## ●10-10-10 캠페인 생산성향상부문

외래간호팀 김옥주 외  
임상시험센터 남문석 외

## ●진료실적우수부서

핵의학과 현인영 외  
신경외과 박현선 외

## ●협력사 친절봉사직원

(주)씨큐어넷 물류팀 김부옥  
(주)신명파워 영상의학과 신은영  
케이텍맨파워(주) 산업의학과 김지혜

## 수습직원채용

특수간호팀 이수진, 추하나  
외래간호팀 남진숙

## 친절직원

12월 병동간호팀(동 8병동) 정혜림 간호사  
01월 병동간호팀(서11병동) 권선경 간호사

# 인하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601)
-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748-910002-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 총괄 현황 | 2008년 12월 31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242명	508,929,950원	371,845,598원	

## ◎ 기부자 현황 | 2008년 11월 15일 ~ 12월 31일 현재

일 자	성 명	약 정 액	비 고
'08. 12. 2	김종선	₩50,000,000	정석기업 부회장(완납)
'08. 12. 10	박재웅	₩500,000	나래이비인후과 원장(완납)
'08. 12. 10	한창준	₩500,000	나래이비인후과 원장(완납)
'08. 12. 10	배성호	₩500,000	코아이비인후과 원장(완납)
'08. 12. 10	최상학	₩500,000	코아이비인후과 원장(완납)
'08. 12. 10	임○○	₩500,000	(완납)
'08. 12. 10	박○○	₩500,000	(완납)
'08. 12. 10	김○○	₩500,000	(완납)
'08. 12. 10	최○○	₩500,000	(완납)
'08. 12. 10	최호순	₩500,000	응암연세이비인후과 원장(완납)
'08. 12. 10	조정현	₩500,000	조은이비인후과 원장(완납)
'08. 12. 10	김○○	₩500,000	(완납)
'08. 12. 10	김대형	₩500,000	웰이비인후과 원장(완납)
'08. 12. 10	이명택	₩500,000	상쾌한이비인후과 원장(완납)
'08. 12. 10	송○○	₩500,000	(완납)
'08. 12. 10	전○○	₩500,000	(완납)
'08. 12. 10	조정일	₩500,000	연세베스트이비인후과 원장(완납)



## 기적을 선물하는 수호천사

불과 1년 전만 해도 김성희(44세) 씨는 유방암의 뼈 전이로 인해 걸을 수조차 없어 누워서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의 병수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2001년 유방암 수술을 받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단둥이 생활하기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니 제때에 정기 건강 검진도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2007년 11월 재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 유방암 발병 당시 세 살 된 아들을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보육원에 맡겨졌던 한 달간의 시간을 제외하면 늘 엄마의 곁에서 엄마의 손발이 되어 준 아들 수남이.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 뛰어 놀고 싶으려면 엄마가 입원하고 있는 두 달 내내 병상을 지키며 때로는 코피도 쏟으며 힘든 간병을 감당해 내고, 통원 치료할 때는 시장 봐서 반찬까지 만들고 청소와 빨래며 살림을 해 낼 정도로 지극 정성으로 간병했습니다.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줄곧 밝고 긍정적인 말로 엄마의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어린 아기였던 자신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힘든 암투병과 생활을 감당해야 했던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수남이도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제발 군대 갈 때까지 살아달라고.. 아니, 몇 가닥 남지 않게 될 엄마의 머리카락 수만큼이라도 살아달라던 아들.. 그런 아들을 두고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는 김성희 씨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성희 씨는 더 이상 자신을 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며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수개월 전 암과 사투하며 투병과정에 있던 절망어린 그때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너무도 밝은 모습으로 변한 김성희씨. 목발에 의지해도 이제는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월셋집에서 정부지원을 받으며 생활하느라 병원치료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의료비 지원을 도와주는 방송 촬영을 통해 수호천사와 같은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층이라 거동이 불편해 집을 나서기 힘들었던 월셋집에서 1층 전셋집으로 이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항암치료 과정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희 씨는 견딜 수 없었던 통증도, 가난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던 것조차 이제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회복을 위해 치료에 애써주셨던 혈액종양내과 교수님들, 간병하던 수남이의 식사를 걱정하며 환자식에 밥을 조금 더 챙겨달라고 신경 써 주셨던 7병동, 서17병동 간호사 선생님들,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놔주시려 애쓰시는 암센터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치료를 가능케 한 수많은 사랑의 후원자들이 오늘의 그녀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프기 전 한 때 노숙자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다시 남을 돕는 수호천사가 되길 자처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도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되어 기적을 선물해 보세요

◆ 의료비 지원 및 후원 관련 문의 : 인하대병원 원공주 의료사회복지사 ☎032-890-2870



# Global Inha

인하대병원에서 가장 외국인 환자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곳 중 한 곳이 바로! 채혈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채혈실을 위한 영어회화 특별편으로 채혈 시 사용하는 영어회화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채혈실의 새해를 영어공부로 유익하게 시작해 봅시다.



**Medical Technologist:** Would you please show me your receipt? / 접수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International patient:** Here you are. / 여기 있습니다.

**Medical Technologist:** Mr./Mrs. \_\_\_\_? When your number, 123, comes up, it's your turn.

/ \_\_\_\_ 씨세요? 123번이 되면, 채혈하시면 됩니다.

**Ding Dong(The international patient's number is displayed on the waiting board.)**

**Medical Technologist:** Patient 123, please.

/ 123번 환자분이요.

(The international patient sits down in front of the Medical Technologist.)

**Medical Technologist:** Raise up your arms, and roll

your sleeves up to your elbow, please. I will draw blood needed for your test. And make a tight fist, please. It's done, release your fist, do not rub and press firmly over the needle-site. / 팔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팔꿈치 위까지 소매를 걷어주세요. 검사를 위해 피를 채취하겠습니다. 주먹을 꼭 쥐세요. 다 됐습니다, 주먹 펴고, 문지르지 말고 꼭 누르고 계세요.

**International patient:** How long do I have to press this? / 얼마나 누르고 있어야 하지요?

**Medical Technologist:** About 3 minutes, please.

/ 직원: 3분 정도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 새해에는 항상 노력하는 Global 인하인,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는 Global 인하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Happy New Year!



## 원 | 고 | 모 | 집

원보 인하대병원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글 재주가 없다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주변의 잔잔한 이야기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적은 글은 읽는 이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어보십시오.

■E-mail : inhapr@inha.com

■보낼 곳 : 대외협력홍보실

☎ 032-890-2603

## 편집위원

김명석

이지현, 김필립 | 대외협력홍보실

유진희 | 간호부

강순자 | 원무보협팀

## 독 자 업 서

보 내 는 사 람

\_\_\_\_\_  
\_\_\_\_\_  
\_\_\_\_\_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08. 07. 09 ~ 2010. 07. 08

인천 우체국  
제40050호

받는 사람



**인하대병원**  
www.inha.com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인하대병원 대외협력홍보실  
원보편집실 앞

4 0 0 - 7 1 1

# 퀴즈 퀴즈 제47회

※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퀴즈 정답과 의견을 독자엽서에 작성하시어, 원내 고객의 소리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홈페이지(www.inha.com)를 참고하시고 인터넷으로 응모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당첨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1** 녹내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녹내장은 실명 원인 1, 2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 ② 녹내장은 조기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경우 실명을 피할 수 있다.
  - ③ 두통과 충혈 등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므로, 증상발현 시 진료를 보도록 한다.
  - ④ 40세 이상의 성인은 1년에 1회씩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 2** 턱관절 질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턱관절 질환은 학생, 운동선수,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인, 신경이 예민한 사람에게서 많다.
  - ② 턱관절 질환의 원인은 이갈이 등의 나쁜 버릇, 잘못된 식습관, 외상, 스트레스, 교합의 부조화, 수면장애 등 여러원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근육에 긴장이 유발되어 생긴다.
  - ③ 턱관절 질환이 있으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한다.
  - ④ 턱관절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 하거나, 냉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
- 3** (ㄱ)00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요인을 인하대병원 의료진이 찾아냈다. (ㄴ)000 교수(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는 12월 11일 BRCA1 유전자의 특정 조합을 갖고 있는 (ㄱ)00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 보다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같은 치료를 시행해도 특정 환자가 다른 환자 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 중 하나를 분석해낸 것이다. (ㄴ)000 교수는 이어 "환자에게 부작용과 고통이 따르는 조직 검사 대신 혈액 검사만으로 맞춤형학을 적용할 수 있다면 환자의 편의성 확보 측면에서 한 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종양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미국임상암학회지>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게재됐다.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

●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 Quiz 정답

1

2

3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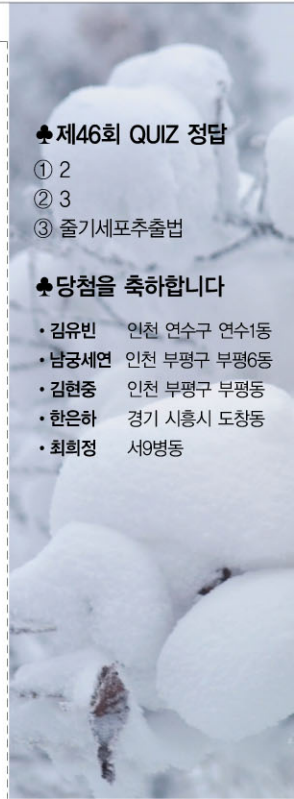
(ㄴ)

### ♣ 제46회 QUIZ 정답

- ① 2
- ② 3
- ③ 줄기세포추출법

### ♣ 당첨을 축하합니다

- 김유빈 인천 연수구 연수1동
- 남궁세연 인천 부평구 부평6동
- 김현중 인천 부평구 부평동
- 한은하 경기 시흥시 도창동
- 최희정 서9병동





| 건강교실 안내 |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li> <li>- 참가비 7만원</li> </ul>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li> <li>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li> <li>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li> </ul>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방암 환자의 식이</li> <li>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파부종 관리</li> <li>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li> <li>-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li> </ul>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3시 ~ 5시 (2/9일, 3/9일)	3층 1 세미나실	(032)890-2560

| 무료공개 강좌 |

강좌 일자	강좌 내용	진료과목	담당교수
09년 1월 20일(금) 오후 3시	만성변비 원인과 치료	소화기내과	권계숙

• 장소 : 병원 3층 대강당 • 문의처 : 교육수련부(☎032-890-2640~2) • 인터넷 홈페이지(www.inha.com)

| 갤러리 전시안내 |

전시 일정	제목	참여 작가	주최
2009. 1. 2(금) ~ 2009. 1. 31(토)	빛과 향기전	안성진 외	인천남구미술인협회
2009. 2. 2(월) ~ 2009. 2. 28(토)	박병태 화백 전시회		
2009. 3. 2(월) ~ 2009. 3. 31(화)	고진오 화백 전시회		
2009. 4. 4(금) ~ 2009. 5. 2(토)	김상화 화백 전시회		

#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 대표전화 (032)890-2114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심장내과 (☎2200)	이우형	*	고혈압, 관동맥질환, 고지혈증	월, 금	화	심장혈관센터 (☎2440~1)	혈액종양내과 (☎2219)	김철수	*	종양학, 혈액학, 골수이식학	월, 수	월, 수	천자확인
	박금수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낭질환	화, 목	월			이문희	*	종양학, 혈액학, 골수이식학	수, 목	월	
	권 준	*	관동맥질환, 심방판막질환, 심근증	월, 수	목			이현규	*	종양학, 혈액학, 분자유전학	화	수, 금	
	김대혁		해외연수(2008. 8 ~ )					김진수	*	종양학, 혈액학, 분자유전학	화, 금	목	
	우성일	*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술, 고혈압		월, 수,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분자유전학	목, 금	화	
	최웅길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금								
소화기내과 (☎2224)	김승우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내시경	월, 화, 목, 금		내시경센터 (☎2540~1)	류마티스내과 (☎2219)	박 원	*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화, 수, 목	월	
	신용운	*	소화관질환, 위, 대장질환	월, 금	수			권성렬	*	관절염, 활관염, 베타2, 레이노	월, 금	화, 수, 목	
	이도행	*	담도, 췌장질환, 위, 대장내시경	화, 목	월			김영옥	*	관절염, 척추염, 통풍	월, 화, 수, 목	화	
	김형길	*	소화관질환, 소화관암, 대장질환	수, 금	월			김철우	*	관절염, 척추염, 통풍	금	월, 화, 수	
	권계숙	*	소화관질환, 변비클리닉	목	월, 수								
	이진우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 대장내시경	목, 금	화, 목								
	정 석	*	담도, 췌장질환, 위, 대장내시경	월, 화	목								
	이정일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 대장내시경	화, 수	수, 금								
	박정엽	*	치료내시경, 소화관질환	수	화, 금								
	박현주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목								
최윤아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화									
김철현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손동욱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김하구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최세로운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호흡기내과 (☎2219)	이홍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중앙	화, 목	월, 금		내과계일반 (☎2250)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월, 수	목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중앙	월, 화, 금	수			신석환	*	소화기외과, 위암	목	월	
	류정선	*	호흡기질환, 폐중앙, 만성폐질환	월, 금	화, 목			홍기천	*	헬리코박테리아	화	목	
	조재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목	화	
당뇨내분비센터 (☎3360, 2215)	김용성	*	당뇨병, 비만, 내분비	화, 목, 금	월, 목	내비만센터 *암생상센터	흉부외과 (☎2280)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월, 수, 목	월	
	남문석	*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월, 화, 수, 목, 금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홍성빈		해외연수(2008. 2 ~ )					허윤석	*	소화기외과, 위	월, 수	화	
	김소현	*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화, 목, 금	수			최선근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화	월, 수	
	오윤주	*	당뇨병, 내분비, 갑상선	월	화, 목, 금			최유미	*	소아외과	금	수	
비만 내분비내과 센터 (☎3360, 외과 2215) 소아 청소년과 가정의학과	김용성	*	당뇨비만(성인)		목		신경외과 (☎2370)	김광호	*	폐질환, 식도질환, 다한증, 기흉	화, 목	화	
	박지현	*	여성비만, 산후비만		월			백완기	*	심장질환, 혈관질환	금	화	
	허윤석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화				김정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월	월, 목	
	김순기	*	소아비만		수			윤용한	*	폐, 식도, 다한증, 기흉	수	수, 금	
	이지은	*	소아비만, 소아당뇨		목			조정수	*	일반흉부	금	금	
이연지	*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 후 체력증진	월, 수	화, 금									
신장내과 (☎ 2229)	김문재	*	신장질환, 고혈압	월, 화, 목		혈액투석진료	정형외과 (☎2380)	박중운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월,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이승우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수, 금	월			박형천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수	수	
	송준호	*	해외연수(2008. 2 ~ )					김은영	*	뇌신경외과, 뇌종양, 인연결핵, 3차신경통, 소아	월, 수	월, 수	
신장이식클리닉	김문재	*	신장이식	화				박현선	*	뇌동맥류, 경동맥협착,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목	목	뇌종양, 연경관중, 뇌신경클리닉, 뇌졸중, 뇌혈관기형, 뇌종양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화, 수, 목, 금				현동근	*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수, 금	화, 금	
	송준호	*	해외연수(2008. 2 ~ )					윤순환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목	화, 수, 금, 수요일	
신장이식클리닉	김문재	*	신장이식	화				박성림	*	척추디스크 질환, 척추관협착증, 골절, 척추 및 지지	금	금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화, 수, 목, 금				오인석	*	슬관절, 인공관절, 슬관절, 척추, 목, 관절, 스포츠의학	월, 수	수	
	송준호	*	해외연수(2008. 2 ~ )					문경호	*	인공관절, 인공관절, 인공관절, 인공관절	화, 목	화	
신장센터 (☎ 2533)	김문재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화, 수, 목, 금		클리닉과 병행		김명구	*	스포츠의학, 관절, 인공관절, 인공관절, 인공관절	월, 수	수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화, 수, 목, 금				강준손	*	인공관절, 인공관절, 인공관절, 인공관절	월, 수	월	
	송준호	*	해외연수(2008. 2 ~ )					김려섭	*	슬관절, 견관절, 스포츠의학, 관절염	목	화, 목	
복막투석클리닉 (☎2535)	김문재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목				조규정	*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협착증, 골다공증	화, 금	수	
	이승우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화, 금				이동주	*	수부, 상지, 중앙, 관절염	화, 금	월	
	송준호	*	해외연수(2008. 2 ~ )					강석봉	*	척추	금	금	
복막투석클리닉 (☎2535)	김문재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목				이 문	*	슬관절, 견관절	월	월	
	이승우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화, 금				정새롬	*	인공관절, 인공관절, 인공관절	목	목	
	송준호	*	해외연수(2008. 2 ~ )					일 반	*	인공관절, 인공관절, 인공관절	화, 목, 금	화, 목, 금	

토요일 오전진료는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신뢰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신뢰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성형외과 (☎3870)	황 건	*	얼굴외상 및 기형, 선천기형, 미용	화, 목	화		이비인후과 (☎2420)	장대영	*	비과, 코(성형), 알레르기	수, 목	월	코성형 : 수요일 △아지러움증클리닉	
	황진희	*	손외과 및 미세수술 화상, 미용	월, 수, 금	수			김영모	*	두경부종양(목), 음성언어(편도X)	화, 목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규성	*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편도	(수), 금	화, (수)	다양화기클리닉(3층) 다양화기클리닉(4층)	
피부과 (☎2230)	최광성	*	모발, 조짐질환, 여드름, 모발이식, 피부외과, 레이저, 비축	월, 화, 목	수 (목)		정신과 (☎3880)	강민희	*	정신분열병, 우울증, 일중증, 노인성정신장애	수, 금	월, 화	우울증특별클리닉	
	신정현	*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색소질환, 레이저, 두드러기, 피부미용	수, 금	월, 화 (금)	△피부레이저클리닉		김철승	*	난치성 항생제내성 외상성성염, 불응성 조짐질환	월, 목	수, 목	조기정신병클리닉	
	이현숙	*	간선,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화	(화), 수, 목	#피부미용외과		이정성	*	소아정신장애(과학, 학습, 주의력, 언어, 행동장애)	월	화, 목, 금	학술예비클리닉(3층) 노인치매클리닉	
비뇨기과 (☎2360)	이승규	*	모발, 모발이식, 피부미용외과	금	화 (수), 금		신경과 (☎3860)	배재남	*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 정신장애	화, 목	월, 수		
	일 반			월, 목	(월), 목, 금			선우영경	*	소아청소년정신과, 성인정신과	수	월, 금		
				월, 목				일 반			월, 화, 수, 금			
산부인과 (☎2270)	서준규	*	성기능장애, 여성배뇨장애, 불임	화, 금	화		재활의학과 (☎2480)	하중건	*	운동장애, 퇴행성질환	화, 수	수, 목	운동장애클리닉	
	박원희	*	유산급, 종양, 전립선질환	월, 수	수			나정호	*	뇌혈관질환, 뇌졸중	화, 금	화, 금	뇌졸중클리닉	
	윤상민	*	종양, 결석, 신이식	월, 목	목			최성혜	*	치매, 기억장애	수, 금	화, 수	기억, 언어장애클리닉	
여성암센터 ☎2560	성도환	*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화, 금	화		가정의학과 (☎2240)	윤창호	*	해위연수(2008. 8 ~ )				
	이택	*	소아배뇨, 소아 및 성인배뇨장애, 야뇨증	목	월, 목			송은철	*	말초신경질환, 자율신경질환, 두통, 뇌졸중	월, 목	월, 금		
	류지간	*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비뇨기외상	수	월, 수			일 반			월, 목	월, 목, 금	수면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60)	이우영	*	부인과종양	화, 목 (금), (수)	(수)	□여성암센터	국제클리닉(☎2455)	정한영	*	뇌졸중중증,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월, 금	(수)	뇌성마비클리닉	
	이병익	*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금	월, 목	△비만센터		김창환	*	근골격계중증외상, 외상과, 말초신경병변	화, 수	목		
	임문환	*	주인외과, 태아성장장애, 유전학, 알코올산부인과학	화, 목	월, 화			김영옥	*	척추수상, 언어장애, 발음장애, 의지보조기	목	월, 화, 금	*언어장애	
외과	송은섭	*	부인종양	월, 화 (수)	화		영상의학과 (☎2740)	김원홍	*	HIFU 초음파 치료	월, 수	월, 화, 수, 목		
	황성욱	*	종양학, 복강경	월, 목	월, 화, 수, 목, 금			조순구	*	중재적 방사선학	월, 수, 목	월, 수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수, 목	월, 화, 수, 목, 금			전용선	*	중재적 방사선학	화, 금	화, 금		
영상의학과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화, 금	월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화, 목 (금), (수)	화,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박지현	*	주산기외과, 산과초음파	월, 수	(월), 수, 목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과, 두경부암, 부인암	월, 수	(월), 수, 목, 금	치료를 확대 시도함	
	이우영	*	부인과종양	금	수			김우철	*		금	화		
안과 (☎2400)	송은섭	*	부인과종양	화, 수	수		사이버 방사선 센터 신경외과 (☎3076)	김현정	*		화, 목			
	황성욱	*	종양학, 복강경	월, 목	월, 화, 수, 목, 금			박현선	*	뇌종양, 뇌혈관기형	화	목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화, 금	월			윤승환	*	척추, 척수, 원발성종양	수, 금			
안과레이저(☎2400)	박정미	*	유방, 내분비외과	화, 금	수, 금		핵의학과(☎3160)	현인영	*	동위원소치료	월, 수, 금	월, 수, 금		
	김윤정	*	유방방사선학	(월), (수)	■방모통, 시술			산업의학과 (☎2861)	임종한	*	환경생물, 화학물질관리, 직업성질환, 직업병	화, 목	화, 목	
	이우영	*	부인과종양	화, 수	수				박신구	*	직업관련 근로각제질환, 사업장 보건관리	월, 금	월, 금	
송은섭	*	부인과종양	월, 목	월, 화, 수, 목, 금		김환철	*		직업성질환, 근로자건강증진	수				
안과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화, 금	월		치과 (☎2470)	김일규	*	구강 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매식	월, 화, 수, 금	화, 목	인공치아메시클리닉	
	박정미	*	유방, 내분비외과	화, 금	수, 금			오남식	*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화, 목, 금	월, 화, 금		
	김윤정	*	유방방사선학	(월), (수)	■방모통, 시술			장금수	*	구강외과	수, 목	월, 수, 금		
소아청소년과 (☎2260)	홍영진	*	심장, 감염	목, 금	월	만5세까지 소아과진료	핵의학과(☎3160)	이연화	*	교정과	월, 수, 금	화, 수, 금		
	김순기	*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수), 목	□비만센터		송경화	*	보존과	화, 수, 목	월, 화, 목		
	전용훈	*	신생아, 미숙아, 발달	월, 목	화, 수	△소아내시경		최두옥	*	소아치과	월, 수, 목	월, 수, 목		
안과	임대현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화, 수	월, 목	▲변비, 갑질클리닉	응급의학과(☎2301)	일 반		응급의학, 약물중독	수	수		
	김정희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월, 수	화, 금									
	권영세	*	신경, 간질, 유전성대사질환	화, 수	월, 목									
안과레이저(☎2400)	이지은	*	신장, 내분비, 유전	화, 목	수 (목), 금									
	강성길	*	소화기, 소아내시경	화 (수), 목 (금)	(월), 화, 금									
	안소현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화, 금	수									
안과	오중협	*	백내장, 녹내장	월, 목	화	항구승무원의료클리닉								
	문연성	*	망막, 유리체, 포도막	화	수, 목									
	진희승	*	망막, 유리체, 백내장	수, 금	월									
안과레이저(☎2400)	강성모	*	안성형, 사시	월, 수	금									
	일 반			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EYAL	*	레이저 클리닉		월, 화, 수, 목, 금									

# Cyberknife



##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된 현존 최고의 암 치료기 - 무통 무혈 '로봇 사이버나이프'

### 4차원 로봇 사이버나이프란?

유럽,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실시간 종양 추적 조정밀 로봇 사이버나이프는 신체 장기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 척추 암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4세대 사이버나이프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4차원 사이버나이프로 실시간 영상 유도 기술, NASA의 우주 항법 기술, 컴퓨터, 로봇팔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하게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 치료 가능한 질환

#### | 뇌종양 |

악성뇌종양 : 전이성 뇌종양, 다발성 뇌종양

양성뇌종양 : 청신경초종, 뇌수막종, 두개인두종, 뇌하수체종

#### | 체부종양 |

전립선암, 폐암, 간암, 췌장암, 소화기암, 유방암, 부인과암(자궁암, 난소암), 비뇨기계암 등 척추종양, 전이성 척추암, 원발성 척추암, 수막종, 척추신경초종

#### | 두경부종양 |

갑상선암, 안와종양, 상악동암, 비 인강암, 뇌기저부 종양

#### | 뇌신경, 혈관질환 |

뇌동맥기형, 해면혈관종, 삼차신경통

#### | 정신과질환 |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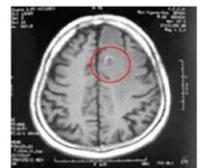
이외에 재발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다발성 종양, 기존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없는 종양 등 다양

#### 뇌종양

뇌실질 정상 조직은 피하면서 종양에만 정밀 방사선 치료



▲ 치료전



▲ 치료후

#### 췌장암

췌장은 주변에 피해야할 중요한 기관들이 많으므로 로봇 수술이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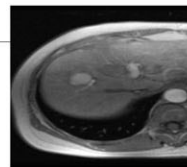
▲ 치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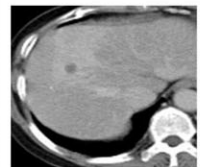
▲ 치료후

#### 간암

간기능 보존 치료



▲ 치료전



▲ 치료후